

순천, 전국최초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일요일도 문 연다

오는 20일부터 진료… 기존 유기동물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확대

순천시는 조국동 반려동물 문화센터 2층에 위치한 반려동물 공공진료소에서 오는 20일부터 공공동물병원 중 전국 최초로 일요일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유기동물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로 진료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관내 동물병원 휴무일인 일요일에 긴급한 치료와 진료가 필요한 유기동물과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진료소에서 응급 처치와 치·진

료 후 중증인 경우 인근 대형 동물병원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은 심한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의 반려동물로 진료비는 무료이며 감면 적용된다.

진료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순천시 민으로 방문 전, 유선으로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하고 예약 후 방문해야 하며, 본인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상별 2마리

이내, 마리당 연 20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은 휴일에 자녀가 아프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반려동물도 휴일에 아프면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살기좋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순천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는 2023년 8월 답양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개소하여 현재까지 1,6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치료하였고, 전국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중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구례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5년(24년 실적)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전국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5개 지자체(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제도운영, 기초위생관리, 우수사례 등 7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다.

구례군은 직무교육 이수율, 현장보고 장비 활용률, 업체 점검 및 적발률, 합동단속 참여 일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수, 위해식품 및 이물신고 민원처리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김순호 군수는 “식중독 없는 구례, 친절하고 맛있는 미식의 고장 구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14일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우수기관을 포상할 계획이다. /구례=오광범 기자

신안군 1호 나눔명문기업에 ‘신안천사김’ 가입

지역사회 나눔 실천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신안군은 지난 15일 오전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천사김(대표 권동혁)의 ‘신안군 1호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을 가졌다.

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 이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 기업 기부자 프로그램이다. 신안군천사김의 이번 가입은 전남에서 22번째, 신안군에서는 최초이다.

신안천사김은 신안 청정해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양식한 김을 원료로 사용해 해외에 우리나라 김의 우수

성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22년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수출기념탑을 수상하고, 2023년에는 국내 최초 FDA 식품인증기준 통과했으며,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신안천사김 권동혁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 나눔은 당연한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신안=정경옥 기자

진도, 임산부 가정에 임신·출산 물품 전달



진도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 가정에 임신·출산 축하물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산 축하물품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 가정이다.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이유식 밥숟,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자동차용 어린이 의자(카시트) 또는 유모차, 유아용품(다용이 해피박스)을 진도군 보건소에서 출산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

또한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도군의 2024년 출생아 수는 출산 친화적 정책 강화에 따라 2023년 대비 20%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군’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백재영 기자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12억 들여 확 바꾼다

전남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선정… 복합 놀이시설·물놀이장 등 도입

장성 홍길동테마파크가 짧게 공간으로 새 단장을 한다.

장성군은 홍길동테마파크가 전남도의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을 테마파크 리뉴얼에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복합 놀이시설, 물놀이장, 체험형 시설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도입

할 계획이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체계적인 콘텐츠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인 ‘홍길동’의 이야기를 주제로 조성한 ‘테마형 관광지’다.

홍길동 생가, 산채 체험장, 야영장을 비롯해 숙박시설로 청백한옥을

갖추고 있다.

축령산의 맑은 공기와 탁 트인 야외공간이 매력적이지만 2004년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로 새 단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홍길동테마파크 재생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관광지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완도군·광주교육청, ‘학생·교직원 해양치유’ 맞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협력



완도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복지 증진 및 학생들의 수련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진행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와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복지 향상과 학생 수련 활동 지원 및 이용료 할인 혜택 제공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홍보를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

류와 협력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 산실인 완도해양치유센터에 7만 명이 다녀가며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양치유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해양치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교직원 복지와 학생들 수련 활동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해남, 중장년층 대상 ‘느긋한 삶, 50+ 힐링여행’ 운영

회차별 20명씩 총 80명 선착순 모집

해남군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남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느긋한 삶, 50+ 힐링여행”은 해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남의 주요 관광 연병종인 50~6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도가 높은 전통주·다도·장류 체험과 정원 투어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선정된 참여자는 1박 2일 동안 해

남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50+ 힐링여행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2025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히 지역 향우회 및 고향사랑기부자 등 집중 홍보를 통해 관계인구 확대를 도모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8회기량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관광객이 해남에 머물며 자연과 문화를 만끽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중앙도서관, 청년활동 공간 ‘미소청년’ 오는 25일 개소식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청년’ 위한 공간 열려…바리스타 체험행사도 진행

광양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양중앙도서관(본관 3층)에서 청년들의 활동 공간 ‘미소청년’ 개소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청년’을 의미하는 ‘미소청년’은 청년들의 창의 활동을 지원하고 특화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양중앙도서관은 향후 청년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로적성검사 ▲창업준비 A to Z ▲쿠킹클래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춘예찬 토크 콘서트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개소식뿐만 아니라 바리스타를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커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이날 ‘핸드드립 커피 내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본적인 추출 기술을 배우고 핸드드립으로 본인만의 커피를 만들어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ang.go.kr>)에서 접수를 진행하거나 광양중앙도서관(061-797-3861)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창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며 “지역 청년들이 ‘미소청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영암 기찬이동빨래방

청송군 이재민 세탁서비스

영암군의 세탁차 ‘기찬이동빨래방’이 경북에서 재난 피해 복구에 손을 보태고 있다.

영암시니어클럽(관장 장영범)이 운영하는 기찬이동빨래방이, 지난 15일 경북 청송군 청송군민체육센터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찬이동빨래방은 영암 각 마을을 돌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이불과 옷 등을 빨아주는 이동식 세탁 서비스 차량으로 올해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영암군의 이번 세탁차 지원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대피소 등에서 생활 중인 청송군 이재민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세탁 차량 지원 여부를 전국 지자체에 물었고, 영암군은 곧바로 이동세탁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영암군을 출발해 15일부터 세탁에 들어간 기찬이동빨래방은, 청송군 이재민 가정의 이불 9채와 옷 47벌을 세탁해줬다.

이주 금요일인 18일까지 87가구 이주민의 구급실을 퍼주는 세탁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영범 영암시니어클럽 관장은 “이재민의 시름까지 털어주는 맡김한 세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장흥, 경로당 409개

정부양곡 지원 시작

장흥군은 지난 11일부터 지역 경로당 409개소에 정부양곡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에 따르면 경로당 양곡은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경로당별 최소 9포에서 최대 14포 지원되며, 이는 전년 대비 4~5포 늘어난 규모다.

공급된 쌀은 2024년 장흥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경로당 배·난방비 집행잔액 발생 시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 친환경 쌀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운영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어르신들의 식사환경 개선을 위해 부식비 지원, 입식테이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목포, 시민 일본어 무료 강좌 내달 20일까지 교육 진행

목포시는 지난 14일,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시민 일본어 무료 강좌’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강의를 돌입했다.

13회를 맞은 이번 강좌는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무료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50명이 참여해 일본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강좌는 오는 5월 30일까지, 매주 월·수·금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총 20회에 걸쳐 운영되며, 일본어 원어면 감사 무라카미 마사코가 직접 강의를 맡아 기초 일본어와 실생활 회화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만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부담한다.

한편, 목포시는 시민 외국어 강좌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